

새벽배송 허용법안 두고 공방 격화 소상공인 “골목상권 사형선고” 반발

소상공인,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상권 보호·유통법 실효성 강화 요구
김동아 “새벽배송 진압해 건전경쟁”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새벽배송’ 허용 여부를 두고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더욱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소형 수퍼마켓, 소규모 마트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에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 휴업, 영업시간제한 등 규제를 받고 온라인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SSM은 족쇄가 풀리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쿠팡 사태’로 쿠팡 이용을 꺼리고 있는 새벽배송 수요 고객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벽배송’ 이슈가 이를 추진하려는 정부, 여당과 허용을 반대하는 거대 표밭인 소상공인업체간 팽팽한 살바싸움으로 변화하는 모양새다.

10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 사무실 인근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쿠팡 보호법’으로 전락했다며 대형마트와 SSM에게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박지원·허성무·양부남 등 민주당 의원 14명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동참했다.

소상공인업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소상공인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 사무실 인근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공인

하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송치영 소공인 회장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지난 십수년간 골목상권을 지켜온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걷어내는 행위이며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에게 새벽배송 권한까지 주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라고 꼬집었다.

이중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 즉각 철회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실질적 강화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앞서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주를 방지한 채 국내 유통사들만 역차별받는 상황은 이제 종료돼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이 새벽배송 시장에 본격 진입해 건전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새벽배송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에선 허용 조건에

서 ‘신선식품 제외’ 소식이 일부 언론을 통해 나오기도 했다.

이를 놓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유통업계에선 신선식품이 새벽배송의 30~5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제한적 허용은 ‘양금 빠진 찌뽕’이라며 볼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보도에 언급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품목에서 신선식품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외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이다.

소상공인 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시행 15년이 지난 유통산업발전법이 당초의 취지에 맞게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오프라인이 무한경쟁을 펼치고 ‘알테쉬’를 중심으로 중국 등 해외 플랫폼까지 왕성하게 진출하고 있는 유통업계 현실에서 소상공인 등 약자 보호에 충실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세단 감성에 SUV 실용성까지”

YG의 CAR TALK

르노코리아 필랑트

날렵한 CUV 디자인, 넉넉한 실내 승차감·정숙성·조향감 등 강점 공인연비 웃도는 16.1km/L 기록

르노코리아 오로라 프로젝트 두 번째 모델인 필랑트는 파격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대거 탑재했다. 첫 번째 모델인 그랑 콜레오스의 인기를 이어가겠다는 르노코리아의 의지가 느껴진다.

실제 필랑트는 사전 예약 7000대를 넘어서며 국내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지난 4일 경주에서 진행된 필랑트 시승 행사 과정에서 사전 예약 고객이 수십 킬로미터를 쫓아와 차량의 승차감과 연비 등을 물어보기도 했다.

필랑트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세단과 SUV의 장점을 담아낸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의 감성을 담고 있다. 대형 SUV의 감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랑 콜레오스 대비 지상고는 10mm, 전고는 70mm 가량 낮췄다. 필랑트의 전장은 4915mm, 전폭은 1890mm로 그랑 콜레오스보다 각각 200mm, 10mm 길고 넓다. 이 때문에 대형 SUV의 몸집을 갖추고 있지만 날렵하다는 느낌이 강하다. 트렁크 용량은 633L로 동급 최고 수준을 확보했다.

차량에 탑승하면 오픈알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운전석부터 동승석까지 이어지는 대형 디스플레이는 미래 지향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동승석에 마련된 디스플레이는 동영상과 음악은 물론 레이싱 게임까지 다

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카메라 기반 증강현실(AR) 레이싱 게임은 스마트폰과 연동해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또 차량에 탑재된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어시스턴트 에이닷 오토 음성 시스템은 주행 중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주행성능은 르노코리아가 강조했던 세단의 감성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저속과 고속 구간에서 불규칙 노면의 진동과 소음을 완벽하게 잡아냈다. 이는 노면 상황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주파수 감응형 댐퍼 기술을 적용한 덕분이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그랑 콜레오스에 진동을 감쇄하는 장치를 한개 적용했지만 필랑트는 주파수 감응형 댐퍼를 추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필랑트는 250마력의 최고 출력과 25.5kg·m의 최대토크를 발휘해 고속 구간에서도 빠르게 치고 나갔다. 와인딩 구간에서도 섬세한 조향감을 제공했다. 조그만 움직임에도 빠르게 반응했고 부드러운 핸들링은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고속도로나 국도에서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기능을 활성화하면 차량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면 안정적으로 주행을 이어갔다.

연비는 경주 보문단지에서 출발해 울주군까지 편도 약 70km 구간을 주행한 결과 공인 복합 연비(15.1km/L)를 훌쩍 뛰어 넘는 16.1km/L를 기록했다. 이는 도심 구간 운행 시 최대 75%까지 전기 모드로 주행을 이어가는 등 그랑 콜레오스보다 배터리 활용폭을 넓힌 결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



르노 필랑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키오스크·서빙로봇 보급

정부가 음식점 등의 키오스크, 서빙로봇 설치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 효율화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은 비대면·디지털 소비 환경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접포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로봇, 사이니지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상점은 기술 도입 비용의 최대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기술 도입 방식에 따라 구입형, 렌탈형, S/W형으로 구분한다.

/김승호 기자

SK네트웍스, 자사주 2071만주 소각

발행주식 9.4% 규모... 1000억 웃돌아

SK네트웍스가 보유중이던 자기주식을 대규모로 소각하며 주주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SK네트웍스는 보유 중인 자사주 중 약 2071만주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발행주식 총수의 9.4%(2조 2000억주)이자 전일 종가 기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향후 핵심인재 채용 및 임직원 보상 등에 활용할 약 3%를 제외한 자사주 전부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소각키로 한 것이다.

SK네트웍스는 그동안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AI 중심 사업모델 전환 및 재무구조 안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주주환원 확대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2023년과 2024년 연이어 1240만주, 1450만주의 자사주를 소각했으며, 2024년 중간배당을 도입한 이래 사업 및

투자 성과에 따라 매년 주당 250원 이상의 배당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주주와의 대화’ 등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투자자와의 소통을 통해 경영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에도 힘써왔다.

SK네트웍스는 이번 자사주 소각 계획을 3월말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중간배당 등을 통한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가는 동시에 이사회 중심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바탕으로 기업과 구성원,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이번 자기주식 소각은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주주 친화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10만평 규모 ‘식품종합클러스터’ 만든다

맑은물에, 과산군과 투자협약 체결

식품전문기업 ‘맑은물’이 충북 과산군과 ‘식품종합클러스터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10일 맑은물에홀딩스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회사는 총 3000억원을 들여 전국에 산재한 맑은물에홀딩스 산하 8개 생산시설을 과산군으로 이전해 공관련 식품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약 10만평 규모의 ‘식품종합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약 500명의 지역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산군은 맑은물에홀딩스의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원활한 투자 진행을 위한 세제혜택 등 재정적 지원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김석원 맑은물에홀딩스 대표(오른쪽)가 10일 송인현 과산군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맑은물에홀딩스

1994년 창업한 맑은물에홀딩스는 두부와 콩나물 등을 중심으로 전국 규모의 생산시설과 판매망을 갖춘 식품전문회사다.

자체브랜드 ‘맑은물’을 바탕으로 두부, 콩나물, 낫또 등 공관련 식품들을 온라인쇼핑몰과 흡소점에서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 납품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